광주세계수영대회 10억9천만명 시청

국제수영연맹 운영 결과 보고서 확정

예산 잠정정산 결과 집행 잔액 179억원 발생 흑자 달성
국제스포츠대회 '저비용 고효율' 성공 모델 세계에 과시
마무리 업무 내년 7월 완료 목표 속도감 있게 추진 기대

2019광주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위원장 이용섭 광주시장)는 최근 국제수영연맹(FINA)에서 광주수영대회 운영 결과 보고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FIN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28일 개최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191개국에서 7천456명이 참가했고, 8월5일-18일 개최한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에는 84개국에서 5천365명이 참가하는 등 총 1만2천821명이 참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또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신기록 10개와 대회신기록 17개가 수립됐다.

수영대회는 145개 국가에서 211개 채널을 통해 방송됐고 전 세계 10억9천만명이 대회를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외 SNS를 통한 노출 건수는 7억 회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영의 변방이라 할 수 있는 아시아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와 선수가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조직위는 평가했다.

더불어 10개의 세계 신기록 수립과 10억명 이상의 시청자 수는 경기운영과 흥행 측면에서도 성공한 대회였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불참, 국내 스타선수 부족 등 악조건 속에서도 김수지 선수의 다이빙 동메달 획득과 여자 수구팀의 첫 골 등 우리나라 선수들의 투혼이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대회 막판에는 구름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최종 관람객 수는 33만 명으로 집계됐다.

◇수입 확충, 지출 줄여 179억원 흑자 예산 달성=무엇보다도 큰 성과는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국제스포츠대회 성공 모델을 보여줬고, 국제수영연맹과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광주수영대회 총사업비가 평창동계올림픽(4조2천853억원) 대비 5%, 인천아시안게임(2조376억원) 대비 11%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경기장 신축을 최소화하고 대회물자와 물품은 임대해 활용했음에도 대회시설과 경기운영 분야에서 여느 대회보다도 훌륭하게 진행됐다고 국제수영연맹이 극찬한 바 있다.

대회 운영 사업비를 잠정 정산한 결과 179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후원, 입장권 판매수익, 마스터즈대회 참가자 등록비 등 자체수입을 기대 이상으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수입은 보조금 825억원(국비 299억원, 시비 526억원), 기타 수입 619억원 등 총 1천444억원으로 예산액 1천342억원보다 102억원을 초과했으며, 지출은 1천265억원으로 예산액 1천342억원보다 77억원을 절감했다.

수입 분야에서 ▲휘장사업이 목표(192억원) 대비 116억원을 초과 달성했고 ▲상품화 사업도 목표(4억원) 대비 7억을 초과 달성했다 ▲입장권 판매수입 74억원(목표 75억원) ▲마스터즈대회 참가자 숙박·등록 수입 45억원 ▲기부금 14억원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수입 목표액(1천342억원) 보다 102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지출 분야에서는 기업 현물후원으로 ▲선수촌 부대시설 27억원 ▲대회 식음료 공급 14억원을 절감했고, 경상적 경비의 긴축 운용과 예비비 미집행으로 대회 흑자운영에 기여했다.

집행잔액 179억원은 2020년 조직위 청산 시까지 운영비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대회 레거시 사업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2020년 7월 조직위 해산 후속업무 추진=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는 대회가 마무리된 지난 8월 이후 후속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2020년 7월 법인 해산을 목표로 대회시설 원상복구, 사업비 정산, 백서 발간, 대회 물자 처분 등 후속 업무를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지금까지의 국제대회 관례에 비춰 가장 빠른 대회 후속업무 마무리다.

경기장 부대시설인 컨테이너, 텐트 등은 지난 11월에 철거를 완료했으며, 임시시설로 설치한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관중석과 수구경기장, 염주체육관 아티스틱수영 경기장, 조선대 하이다이빙 경기장은 2020년 3월까지 원상복구를 목표로 현재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선수촌으로 사용했던 광산구 송정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대회기간 동안 발생한 아파트 비품 손·망실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 후 복구비용까지 정산 완료해 지난 11월에 최종 마무리됐다.

대회기간 사용한 사무용 집기 등 물자 9만6천점에 대해서도 11월에 처분을 모두 끝냈다.

책상, 의자, 노트북 등 사무용 집기는 대부분 매각하고 일부는 광주시와 산하기관에 무상양여했으며 삼성전자로부터 후원받은 냉장고 1천996대는 저소득층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조직위가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기부 처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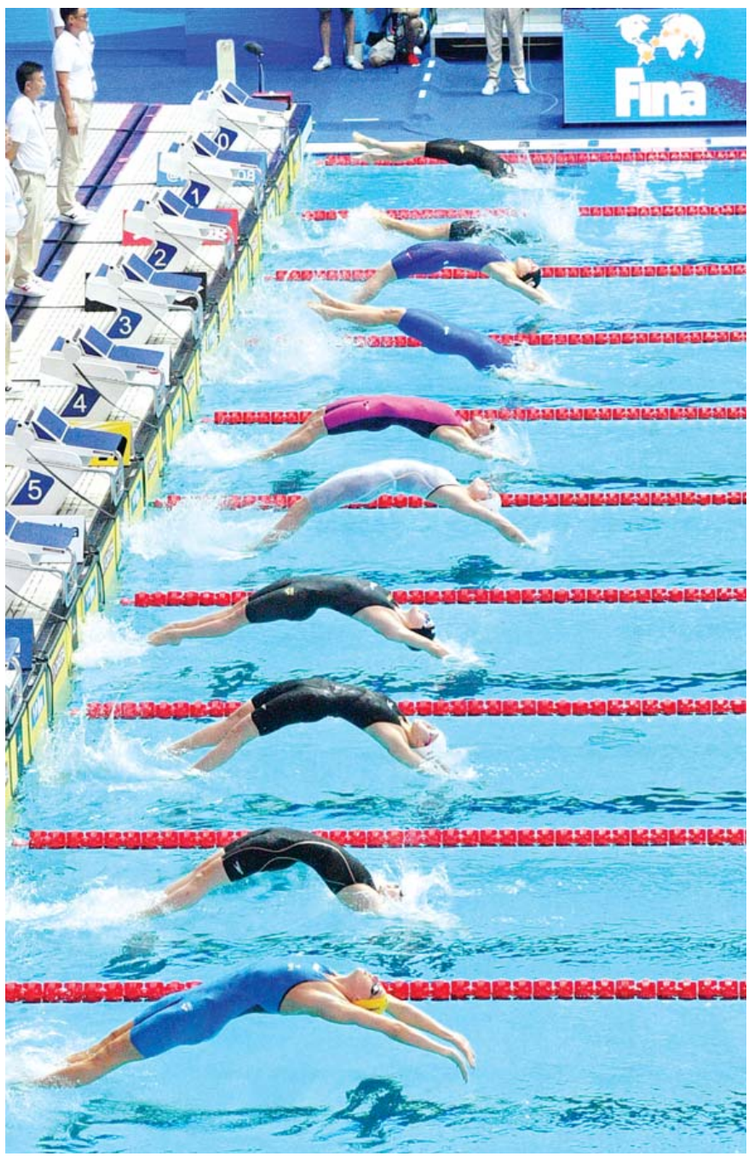
선수촌에서 사용하고 남는 소모품은 복지시설에, 수구 골대 등 경기용 기구는 수영관련 단체에 각각 무상양여 했고 파손이나 내구 연한이 지난 물품 등은 폐기처분했다.

현재 43명으로 운영 중인 조직위원회 사무처는 2020년 1월1일자로 12명의 최소 인력만 남아 사업비 최종 정산, 기록물 이관, 유공자 포상, 조직위원회 해산 및 청산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대회조직위는 2020년 7월 중 청산단 전환을 목표로 2020년 6월까지 유공자 포상과 대회기록물 이관 등 모든 업무를 마무리 한 후 해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용섭 조직위원장은 "국내 스타선수 부재, 북한 불참, 총사업비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출발한 수영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대회 관계자, 자원봉사자, 언론 그리고 시민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며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회 후속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등 대회 유산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지난 7월12일-28일 개최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세계 신기록 10개, 대회신기록 17개가 수립되는 등 전세계 수영인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치뤄졌다.

광주수영대회 성공개최 기념 사진전 연다

조직위, 23-27일 시청서 공식 기록 70여점 첫 공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성공개최를 기념하는 사진전시회를 23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개최한다.

'온 인류와 함께 한 2019 감동의 순간(부제 Dive Into Gwangju 2019)'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그 동안 조직위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 사진이 외부에 처음 공개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위에 따르면 70여점 이상의 공식 사진에는 조직위와 국제수영연맹(FINA)이 대회를 준비해 나가는 모습부터 물 속 선수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수중 장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선수촌 내부 장면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감동의 순간을 시민, 자원봉사자와 서포터즈 등 대회 참가자 모두와 함께하기 위해 시민·언론 등의 사진도 선보인다.

지난 11월 온라인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민 작품과 한국사진문화예술진흥회 작가 사진, 광주전남사진기자회의 보도 사진 그리고 광주시·시의회·여수시 등 개최도시 홍보 사진도 함께 전시될 예정으로 모두 200여점에 달한다. /김종민 기자

남도한바퀴-KTX 연계 바다여행상품 출시

道, 내년부터 이용객 편의 반영

전남도가 2020년부터 버스 여행상품인 남도한바퀴와 KTX고속열차를 연계한 새 여행상품 '남도한바퀴 새바여행'을 출시한다.

'새바여행'은 새벽기차 바다여행이란 의미다. 이른 아침 KTX고속열차를 타고 광주송정역에 내려 남도한바퀴 버스여행을 즐기는 것이다. 저렴한 이용요금과 편리한 KTX역 출발로 하루 만에 전남 바다여행을 가능케 한 획기적 여행상품이다.

남도한바퀴는 2014년 1만1천여명을 시작으로 2018년과 2019년 연 4만여명에 가까운 이용객을 유치하며 성공적 시티투어 상품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가까운 광주와 전남 내 이용객에 치중된 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KTX 연계로 수도권과 다른 시 도 이용객의 접근성을 확보해 파격적인 가격 할인, 이용자 편의를 반영한 연계상품을 마련, 2020년 남도한바퀴와 전남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방침이다.

남도한바퀴 새바여행은 총 4개 코스로 구성됐다. 명품 해안뷰의 대결이 펼쳐지는 '쏠비치해안길 VS 접도웰빙길 여행(해남·진도)', 천사대교 넘어 새로운 판타지 '천사의 섬 여행(신안)', 최고 바다 최대 난대숲의 만남 '남녀노소 엄지척 여행(해남·완도)', 고흥 속의 신의 선물 '자연속의 예술여행'이다. 매주 수·목·금·일 1일 2코스씩 주 8회 운행된다.

이용 요금은 코스에 따라 1만9천-3만6천100원이다. KTX 편도운임과 남도한바퀴 이용요금을 모두 포함한 가격이다. KTX 출발역별로 요금에 차등이 있다. 출발역은 행신역, 서울역, 용산역, 광명역, 오송역, 공주역, 익산역, 정읍역 등 총 8개 역이다. 용산역 기준 오전 6시 30분 출발하는 KTX505열차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상품 안내와 이용 예약은 레츠코레일(www.letskorail.com) 여행상품코너(전라권)와 금호고속 예매전화(062-360-8502)를 통해 가능하며 상품 운행은 2020년 1월 15일부터다.

/김재정 기자

전남 올해 최대 뉴스 '한전공대 유치'

'블루 이코노미' 등 10대 뉴스 선정

전남도가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9 전남도정 10대 뉴스'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총 설문응답자 1천407명 중 405명(28.8%)이 '한전공대 유치'를 꼽아 올해 전남도의 최대 뉴스로 선정됐다.

설문조사는 올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38개 주요 뉴스에 대해 10개 뉴스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이달 5일부터 11일 동안 진행됐다.

2위는 '새천년 전남의 미래발전 비전, 블루 이코노미 시대 개막'으로 378명(26.9%)이, 3위는 '전남도 2020년 국고, 사상 최초 7조원 돌파'로 352명(25%)이 응답했다.

그 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대한민국 신성장축', '전남도 2019년 청렴도 평가, 최하위에서 2등급 수직상승', '전남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섬의 날 썸 페스티벌에 15만여명 몰려 성황', '빛가람 에너지밸리 투자유치 400개 기업 돌파', '국제농업박람회 관람객 51만명 대박', '전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전국 1위' 등도 차례로 10대 뉴스에 올랐다.

/김재정 기자